추수감사절이다. 미국에 첫 이민자로 들어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절기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지키면서 국가적 기념일이 된 것이다.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시작한 나라가 없다. 성경에는 이 절기를 "초막절"(신16:13-15), "수장절"(출23:16)로 불렀다. 세가지 절대 언약과 누릴 축복이 담겨있다.

**첫째는 한 해동안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과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다. 문제와 고통이 계속되는 세상이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붙잡으신 것이다.** 하나도 그 분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. 그래서 성경은 받은 것이 아니고,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감사하라고 했다(신16:15)

**둘째는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(마13:36-43).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. 그때 가라지도 뽑고, 원수 마귀의 심판도 이루어진다. 모든 사람이 각기 행한대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(고후5:10).** 그래서 흔들리지 많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한 것이다(고전15:58).

**셋째는 이 땅에서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하는 영적인 언약이다.** 농부가 한여름의 더위와 병충해들을 이겨낸 알곡들을 창고에 모으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모여지는 축복된 열매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요15장에 아버지가 농부이고, 그리스도는 나무이고,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라고 한 것이다.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한 것이다. **그 한 여름의 더위와 각종의 병충해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는가? 먼저는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수고이고, 가지가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고,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. 그 힘의 축복이 그것이 영성이다.** 본문에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축복을 누렸다. 영성의 축복은 나이에 상관없고, 훈련되는 것이다.

**1. 이 영성은 모든 인생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다.**

**1)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결과이다(창1:27).**

하나님을 닮은 자들,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. 거기에 핵심이 영성이다. 그 영성에서 창조적인 능력(창조성)도 나오고, 하나님의 성품도 나오는 것이다.

**2) 이 영성은 더 구체적으로 그 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.**

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. 에덴에서 수고하고, 에덴을 지키라고 했다. "직업"이라는 "occupation"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.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?

**3)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"정복"(히브리어의 "카바쉬")이라는 단어가 영적 싸움을 포함한다고 했다.**

먼저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사단의 영들이 아담과 하와를 노리고 있었고, 그래서 정복하라는 미션과 축복도 주셨다. **첫 인생이 여기서 무너진 것이다.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, 사단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된 것이다.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와 저주만 해결한 것이 아니다.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(눅1:71),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(요일3:8),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고 했다(행10:38).**

**2.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영적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다. 이 축복이 영성이다.**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가지 권세와 능력을 누리라는 것이다.

**1) 복음의 능력이다. 모든 죄인된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다(롬1:16-17)**

**①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.** 아담에게 시작된 타락한 본성(롬5:12의 원죄)이 있다. 가문에 흘러온 영적 문제가 있다. 나 개인에게 있는 죄, 상처, 무능력, 분노들이 있다. 절대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.

**②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, 부활하시면서 그 분의 생명을 주셨다(롬6:3) 아무도 우리를 그 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고(요10:28),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, 어떤 권세와 능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게 끊어낼 자가 없다고 했다(롬8:34-39). 말씀 속에서 300% 복음 붙잡아야 한다. 우리의 숨은 상처, 고통, 실패, 부끄러움, 전부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, 새로 시작하라.**

**2) 성령의 능력이다.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이다(요14:16-18)**

**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,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했다. 그 분이 도우실 때 나오는 첫 번째 것이 영성이다.**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치시고, 내 인생의 보증자가 된 것이다(엡1:13-14)

**② 이 성령이 도우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(마17:21, 롬14:7). 내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(마12:28). 내 가정에서, 직장에서,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. 흑암부터 꺾고,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된다.**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 축복과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. 악기를 연주하는데, 흑암이 꺾인 것이다. "기름부음을 받았다"는 의미가 성령이 함께 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. 구원받은 순간 시작된 것이다.

**3) 보좌의 능력이다.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,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했다(시103:19).**

**① 보좌에 누가 계시는가?**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, 그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(롬8:34). **그 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, 기도하신다고 했다(보좌의 배경, 보좌의 축복, 보좌의 망대).**

**② 주의 백성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다(시103:20, 계8:3-4) 말씀을 듣고,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다. 강단은 보좌와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다.**

**③ 특히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좌의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사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(막16:19-20)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다.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이 이것이다(마28:18-20)**

**3. 이제 이 준비된 영성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. 그것이 영성 훈련이다.**

**1) 이 영성 훈련을 어린 시절에 시작해야 하고, 평생 해야 한다.**

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양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, 찬양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. **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,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모하며 하는 음악이 있다. 영성이 담긴 음악이다. 훈련이다.**

**2) 평상시의 삶이 영성이 만들어지고, 쌓여지도록 하라. 평상시의 영성 훈련이다.**

바울이 디모데에게 "이 마지막 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(훈련하라)"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(딤전4:7-8) 예배도 훈련이고, 묵상도 훈련이고, 기도도 훈련이다. 평상시 삶에서 우선권이 되게 하고, 루틴이 되도록 도전하라. **나중에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, 이기게 하실 것인지를 기도로 물어보고 했다(삼하5:19).**

**3) 가장 아프고, 절망스러운 시간은 그 분이 나의 오직이 되는 영성 훈련의 최고의 기회이다.**

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이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, 거기서 영성이 만들어진 것이다. **그때 훼방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, 참 평안과 응답이 온다. 시편 23편은 다윗의 영성이 담긴 대표적 시편이다**

**결론-**어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, 살리고, 내 인생이 응답과 증거, 작품이 되는 최고의 힘이 영성이다.